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기업호민관, 협약 체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 윤종용)는 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민화)과 9월 4일 오전 11시 상암동 소재 전자회관에서 상호 업무협조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기업호민관(護民官)이란, 옴부즈만을 행정학적으로 호민관(護民官)으로 해석하며, 로마 시대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호민관 제도를 도입한 사례와 같이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IT 산업의 경영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상담·조사와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양 기관의 시설 및 자원을 상호활용하고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KEA는 1,000여개 회원사를 비롯하여 전자·IT 분야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호민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기업호민관은 이에 대한 규제해결내용을 회신하게 된다.

그동안 KEA는 전자·IT산업 전반의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이번 기업호민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진정한 기업경영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IFA 2009전시회 한국관 운영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IFA 2009에서 20여 개 중소기업체를 모아 별도로 '한국관'을 꾸몄다. 지난해보다 오픈형 부스를 늘려 관람객 유입률과 주목도를 높였다. 비즈니스

센터도 별도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각 업체별로 통역을 제공해 바이어 상담 및 수출 계약을 적극 돕는다. 한국관 참여 중소기업체는 과거 다른 전시회에서 이번 IFA 참가를 요청받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체와 처녀전시회에 나선 업체 등 면면이 다양하다. 멀티미디어 단말기, 디지털 스토리지, 보안 소프트웨어 등 틈새 시장을 겨냥

한 제품 등을 집중 선보인다. 특히, 자동차 강국 독일인만큼 자동차 관련 제품 전시하는 중소기업체가 늘었다. 자동차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선보이는 이지세이버의 경우 다른 해외전시회에 참가해 IFA 관계자에게 러브콜을 받아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현대유비스는 내비게이션을, 아몬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내놨다. 또한, 에스비엔테크는 IP기반 비디오 통신 단말기를, 새로텍은 하드디스크형 저장장치로 IFA를 찾았다.

전자산업진흥회 측은 "지난해 수출 계약 등 성과가 좋은 편이었다"면서 "올해는 그보다 더 좋은 성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선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국 103개 초등학교에 전자키트 지원

전국 100여개 초등학교에 전자기기 작동의 기반이 되는 제어기판(디지털 전자키트)이 보급돼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디지털지식을 가르치게 된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흥미 유발과 창의력 있는 기초 과학기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차세대 디지털리더 육성 프로그램' 2단계 사업 발대식을 갖고, 전국에서 시범협력학교로 선정된 103개 초등학교에 디지털 전자키트를 전달했다.

현재 초·중학교 과학 및 실과, 기술 과정에서 기초 전자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초보적 이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이같은 전자키트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될 경우, 학생들의 참여나 흥미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단계 프로그램에선 MP3플레이어 키트, 레이저광통신 키트 및 디지털 기반키트 등이 활용됐지만, 이번 2단계부터는 1단계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과 응용력을 넓힐 수 있는 마이크로 콘트롤 유닛(MCU) 기반키트, 무선통신(LED, RFID, 블루투스) 키트 분야로 범위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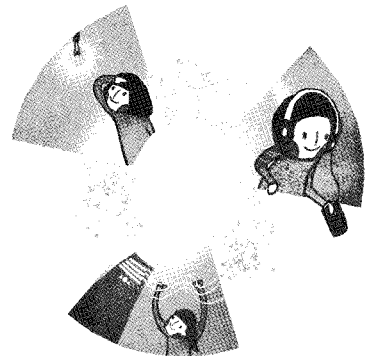
이번 시범협력학교로 선정된 103개 초등학교의 지도교사(정보과학부장) 1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진흥회 산하 권역별 교육센터(4개)로 나뉘어 사전 교육을 진행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을 구성

해 학교 수업현장에도 파견할 예정이다. 웹사이트(www.diki-3000.org)를 통한 교육내용 업그레이드 및 e러닝 콘텐츠 지원도 병행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금년 하반기 시범 교육현장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5개년을 목표로 Diki-3000 사업의 보급·확산을 위해 30여종의 다양한 디지털 전자키트를 제작하여 전국의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지원 요구계획이다.

또한, 사교육 비용 절감과 기초과학 기술에 대한 국민 홍보확산을 위해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한국전자산업대전(KES 2009) 기간 중 "Diki-체험관"을 마련, 전시 체험활동과 키트 조립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진흥회는 지난 2007년부터 2년동안 1단계로 서울·수도권지역 10개 시범협력학교와 방과후수업 형태로 차세대 디지털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p>교육진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실, 영재특별반 등(학교별로 1class에 20명이 구성, 학교당 최소 1class~3class를 운영) ■ 매년 전자키트 5종 이상 개발, 전국 초교 10% 보급(30종 이상, 500학교/5년) ■ 경진대회를 통한 국가적인 관리 지원(특례입학기회, 시범·연구학교 지정 등을 통한 현장 교육 활성화)
<p>권역별 교육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권(서울교대), 중부권2(경인교대), 영남권(대구교대), 호남권(광주 교대)에서 주변지역의 시범협력학교 지원 및 멘토링과 주변학교 및 일반인에 대한 별도의 강좌 프로그램 운영 예정